



공영민 고흥군수는 최근 나로우주센터 인근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를 방문하며 올해 첫 행보를 시작했다.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핵심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도 중점 신규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우주산업 중심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고흥,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전력투구’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사업 현황 점검

공영민 군수 “미래형 우주도시 도약 목표”

고흥군이 산업인프라 확충과 함께 산업·연구·주거·교육·문화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 모델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본격화한다.

공영민 군수는 최근 나로우주센터 인근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를 방문하며 올해 첫 행보를 시작했다. 군은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핵심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도 중점 신규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우주산업 중

심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군은 지난해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관련 기반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우주산업 클러스터 연계도로(국도 15호선) 확장사업 예타 통과,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중앙투자심사 통과, 사이언스 컴플렉스(교육·체험시설) 국정과

제 반영, 민간전용 엔진 연소시험시설 2026년 국비 20억원 확보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우주산업 기반을 강화했다.

올해는 국가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핵심사업과 신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국가 우주인프라 확장으로 차세대 발사체 발사를 위한 제2우주센터 유치와 우주항공산업 정책기획 및 기업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우

주항공산업진흥원(가칭) 유치가 최우선 전략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주산업 성장과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인구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신규사업으로는 민간발사체 추적 레인저시스템 구축, 우주산업 자·산·학·연 연합캠퍼스 조성, 우주항공기업 기술자립 연계형 지역성장 지원사업, 차세대 초소형 위

성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며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공영민 군수는 “나로우주센터에서 새해 군정을 시작하는 것은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임을 선언하는 상징적 출발이다”며 “올해는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 산업진흥원 유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기반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미래형 우주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소통하는 나주 ‘주민과 대화’로 지역 발전 해법 찾는다

7~20일 20개 읍·면·동 방문

시민의견 반영 시정 방향 설계

나주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시정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7일부터 20일까지 20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새해 첫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의 일환으로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지역별 현안과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했다.

남평읍을 시작으로 관내 20개 읍·면·동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일정에서는 ‘인공태양 연구 시설 구축’, ‘2026 나주방문의 해’ 등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방안을 함



나주시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0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6년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2월에 실시한 주민과의 대화 모습.

께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 현장에서는 체감하는 불편 사항과 지역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등을 폭넓게 수렴해 실질적인 개선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병태 시장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나주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공감하며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이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로 연결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해남, 임하도항 해양관광 거점 조성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어울림센터 신축 등 개선

해남군은 최근 문내면의 임하도항 어촌뉴딜300사업을 준공하고, 임하도항을 우수영권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임하도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지난 2022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총 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선착장과 어구·어망창고, 파도막이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어항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어업인의 생활 여건을 높였다. 또 임하어울림센터와 공중화장실 신축, 노을숲길 등 특화사업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편안히 쉬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했다.

임하항이 위치한 임하도는 예라리에 속한 섬으로, 우수영 울돌목에서

남해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해 승어, 김 등 각종 수산물이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다. 특히 멸종위기종 상괘리가 뛰노는 청정바다의 경관이 매우 아름답고, 예술인이 머물며 창작활동을 하는 레지던시 등이 위치해 문화예술 자원도 풍부한 섬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섬과 치유’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어촌 재생’을 목표로 어울림센터를 신축해 마을회관과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어항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해양관광의 거점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해남군은 최근 문내면의 임하도항 어촌뉴딜300사업을 준공하고, 임하도항을 우수영권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사진은 명현관 군수가 어울림센터를 방문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는 모습.

장흥, ‘소중한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출산 장려 사회적 분위기 조성

장흥군은 1월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실제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제작되며, 앞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된다.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간, 몸무게, 부모의 소망 등이 담긴 아기의 소중

한 첫 순간이 특별하게 기록될 예정이다.

발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장흥군에서 출생한 아기로, 출생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과 일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을 통해 아이의 출생을 기념하며, 가족들에게 따뜻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장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지역 활성화’ 순천사랑상품권, 최대 12% 할인

시, 내달까지 사용 가능…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 촉진

순천시가 새해와 설 명절을 맞아 2월까지 두 달간 순천사랑상품권 할인 행사를 추진해 지역 소비 촉진에 나선다.

지류상품권은 구매 시 10% 선할인이 적용되며, 모바일 순천사랑상품권은 10% 선할인에 더해 사용 금액의 2%를 후케시백으로 제공해 최대 12%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러한 할인 구조로 명절을 앞둔 소비 수요를 지역 내 가맹점으로 집중 유도하고, 상품권 구매뿐 아니라 실제 사용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사용 후 혜택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이용 빈도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새해 기간에도 순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를 추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매출 회복과 소

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당시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았고,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역시 확인됐다

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새해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는 매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지역에서 쓰는 소비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강화해 지역 경제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류 순천사랑상품권은 순천 지역 농협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착)’ 앱을 통해 충전·사용할 수 있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영암, 신혼부부·청년 공공임대주택 100호 공급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국·도비 407억 확보

영암군은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지자체가 입주 자격과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제도다.

군에 공급될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4㎡ 이하 신혼부부, 60㎡ 이하 청년을 위한 집으로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10년까지 살 수 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영암군은 영암읍 남포리에 조성될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인 ‘전남형 만원주택’에 50호를 추가해 지상 12층 등 총 100호 규모의 거주지를 건립할 예정이다.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선정으로 영암



군과 전남도는 국비 220억원, 도비 187억원으로 구성된 총사업비 407억원을 확보했고, 앞으로 공동 주택 건립에 나선다.

이후 신혼부부와 청년 입주자모집, 단지 관리 등 운영 전반은 전남도주거복지센터에서 담당한다.

신원중 영암군 도시디자인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역 청년의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주거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